

경제와 노후생활

■ 경제

- 동 향 : 2월 신규취업자 83.5만 명 증가
- 이 슈 : (경제) 한국의 대중 부품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
(산업) 최근 저물가 지속의 배경과 향후 전망

■ 노후생활

- 테 마 : 고령화시대의 가계자산관리
- 세 심 록 : 정신건강에 좋은 직장 만들기
- 북 리 뷰 :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최연혁 著)

□ 동향

○ 2월 신규취업자 83.5만 명 증가

-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신규취업자는 경기 회복세 지속과 작년 2월 설 연휴로 일부 서비스업의 취업자가 감소한데 따른 기저 효과 등으로 83.5만 명 증가
 - 고용지표 동향 : 신규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83.5만 명 증가하였고 고용률(15~64세)은 64.4%로 전년동월대비 1.7%p 증가. 다만 실업률은 4.5%로 전년동월대비 0.5%p 증가하여 2011년 2월(4.5%) 이후 최고 수준
 - 산업별 : 서비스업(+61.2만 명)이 전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가운데 제조업(+13.5만 명), 건설업(+5.9만 명) 역시 고용 증가세가 확대
 - 연령별 :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전체 취업자 증가를 견인한 가운데 청년층(+14.8만 명)과 40대(10.9만 명) 역시 고용 증가폭이 확대

○ 미국 2014 경제성장 전망 하향 조정

- 미국의 연방준비은행(Fed)은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4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고 발표
 - 경제성장률 : 2013년 12월 제시한 전망치 2.8~3.2%에서 2.8~3.0%로 하향 조정
 - 실업률 : 2014년 실업률은 6.1~6.3%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지난 전망치 6.3~6.6%보다 크게 낮춤
 - 개인소비지출 인플레이션 : 지난 예상치인 1.4~1.6%보다 좁혀 1.5~1.6%로 수정. 연준은 장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책정한 뒤 과반 이상의 FOMC 이사가 2015년 말까지 정책금리를 1%이하로 인하할 것으로 전망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2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3/10	3/24
실물지표	GDP성장률(%)	2.0	1.5	2.3	3.3	3.9	-	-	-	-		
	제조업생산(%)	0.8	-1.8	-0.8	0.0	1.7	-0.7	3.0	-4.2	-		
	소비자물가(%)	2.2	1.6	1.2	1.4	1.1	1.2	1.1	1.1	1.2		-
	실업률(%)	3.2	3.6	3.1	3.0	2.8	2.7	3.0	3.5	4.5		
	경상수지(억달러)	480.8	99.7	198.0	189.8	219.7	60.3	64.1	36.1	-		
금융지표	국고채3년물(%)	3.13	2.68	2.67	3.01	2.90	2.94	2.94	2.89	2.85	2.88	2.86
	원/달러(원)	1,126.8	1,084.1	1,122.2	1,112.2	1,062.1	1,062.8	1,056.7	1,064.8	1,071.3	1,070.6	1,068.6
	코스피지수(P)	1,930.4	1,985.4	1,932.6	1,917.7	2,009.3	2,009.9	1,988.3	1,948.2	1,937.3	1,968.3	1,936.5

주 : GDP성장률, 제조업생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금융지표는 3/10~3/21 평균값임.

□ 이슈 : (경제) 한국의 對中 부품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¹

○ 對中 의존도가 높아지는 부품산업

- 지난 2000년~2013년간을 살펴보면, 한국의 부품 수출에 대한 對中 의존도가 빠르게 상승
 - 한국의 對中 부품 수출 규모는 지난 2000년 42.3억 달러에서 2013년 703.6억 달러로 지난 13년간 연평균 약 24%씩 증가하였고, 한국의 전체 부품 수출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5배 증가

○ 한국의 對中 부품산업 특징

- 한국의 對中 부품산업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요 부품산업 품목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對中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對中 비교우위 개선 품목이 줄어든 반면, 중국의 경쟁력 개선 품목이 빠르게 증가
 - 한중 부품산업의 무역특화지수는 지난 2000년 0.10에서 2013년 0.40으로 증가하는 등 아직은 한국의 對中 부품산업 경쟁력이 우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세부품목별로는 전체 46개 품목 중 약 63%인 29개 품목에서 한국의 對中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되는 양상을 나타냄
- 기술수준별로는 고위기술은 경쟁력이 향상되었으나, 중고위 및 중저위 기술 품목 가운데 일부품목의 對中 경쟁력 약화
 - 기술수준별 한중 간 부품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전자 등 고위기술 품목의 對中 수출 비중은 지난 2000년 69.5%에서 2013년 62.5%로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 13년간 24%씩 증가하고 있으며, 중고위·중저위 기술 품목은 동기간 각각 15.2%, 15.3%에서 각각 19.0%, 31.8%로 증가
 - 한편, 한국의 對中 기술수준별 경쟁력은 고위기술 품목은 모두 향상되었으나, 일반기계, 조립금속 등 일부 중고위·중저위 기술 품목은 對中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한중 간 품목별 수출 경쟁 심화
 - 한중 부품산업의 수출경합도를 살펴보면, 지난 2006년 0.36에서 2013년 0.43으로 수출 경쟁이 지속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품목별로는 전기기계, 전자 등 2개 품목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체 46개 세부품목의 약 61%인 28개 품목에서 한중 수출경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¹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한국의 對中 부품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14-9호(통권 580호), (2014. 02. 28.) 에서 발췌 요약.

○ 한중 부품산업의 경쟁력 비교

< 한중 품목별 비교우위 비교² >

(개)

구분	전체 품목수	2000~2004년 대비 2010~2013년 품목수 변화	
		한국의 對中 비교우위 개선	중국의 對한국 비교우위 개선
조립금속	6	1	5
일반기계	15	2	13
컴퓨터· 사무기기	2	1	1
전기기계	8	4	4
전자	3	3	0
정밀기기	5	3	1
수송기계	7	3	4
부품산업 전체	46(100%)	17(37.0%)	29(63.0%)

< 한국의 對中 부품산업 경쟁력 평가 >

구분	한중 수출경쟁	한국의 對中 비교우위 평가
조립금속	유지	약화
일반기계	심화	약화
컴퓨터사무기기	심화	유지
전기기계	심화	유지
전자	심화	개선
정밀기기	심화	개선
수송기계	심화	약화

- 한중 수출경쟁 심화 품목 간 對中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

- 전체 46개 세부 품목 중 41%인 19개 품목은 한중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對中 경쟁우위는 하락하고 중국의 對한국 경쟁우위는 개선되는 양상을 보임

-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한국의 對中 부품산업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중 부품산업은 조립금속, 일반기계 등 7개 분야 중 6개 품목에서 수출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더욱이 한국의 對中 부품산업의 경쟁우위는 대체로 약화되고 있는 반면, 중국의 對한국 비교우위는 미약하나마 빠르게 개선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음

한재진 연구위원 외 (2072-6225, hzz72@hri.co.kr)

² 한중 간 부품산업의 경쟁력은 총 46개 부품산업을 대상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수출경합도와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하여 비교·분석.

□ 이슈 : (산업) 최근 저물가 지속의 배경과 향후전망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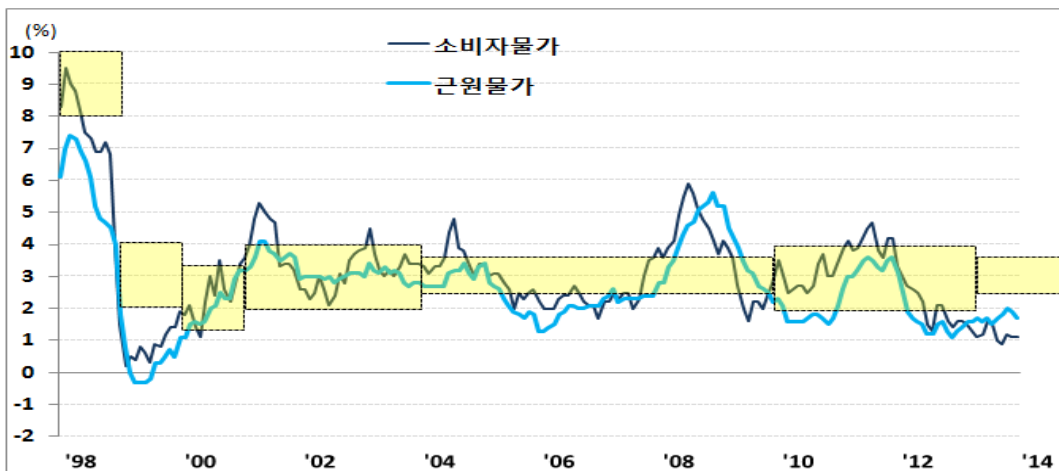
- 신축적인 통화정책 필요

○ 국내 저물가 우려

- 국내 물가 상승률이 정부의 물가목표치를 15개월 연속 하회함에 따라 저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부터 둔화되어 1%대 초반의 상승률이 지속
- 저물가 현상이 심화될 경우 실질금리 및 실질임금 상승, 채무부담 증가 등을 통하여 경제에 영향을 미침
- 한국은행이 2.5~3.5%로 물가목표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것 역시 고물가뿐만 아니라 저물가도 우려하기 때문

<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 물가인정 목표 대상은 2000~2006년은 근원인플레이션, 나머지 기간은 소비자물가.

○ 저물가 지속의 배경과 향후 전망

- 저물가 배경

- (수요측 요인 : GDP갭률) 실제GDP가 잠재GDP를 밑도는 디플레이션갭이 지속되면서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상황
- (통화측 요인 : 통화량 및 물가갭) 통화증가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통화측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상황

³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과제』 “최근 저물가 지속의 배경과 향후 전망” 14-8호, (2014. 02. 12) 에서 발췌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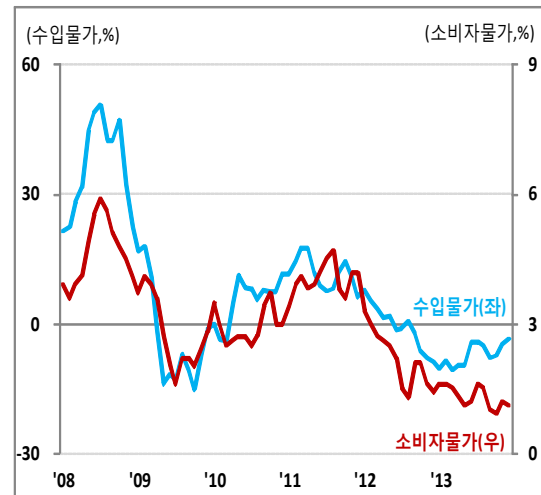
- (공급측 요인 :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되면서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
- (공급측 요인 : 환율)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절상되면서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 원/달러 환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수입물가 및 소비자물가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향후 물가 전망

- 국내는 향후에도 물가상승률이 한은 목표치를 하회하는 저물가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GDP갭률** : 경제성장률은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반등의 힘은 과거보다 약하고 디플레이션갭이 지속되어 수요측 물가압력은 2014년에도 낮을 것으로 보임
 - **통화량** :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하락한 통화 증가 속도는 2014년에도 과거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유가 및 원자재 가격** : 2014년에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
 - **환율** : 2014년에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국내 경제 펀더멘털과 통화 수급 요인 등을 고려할 때 2013년 연평균 1,095원보다 절상될 것으로 보임⁴

김천구 선임연구원 (2072-6211, ck1009@hri.co.kr)

⁴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원화강세 당분간 지속 가능성 높다” 13-52호, (2013. 12. 13) 에서 발췌 요약.

□ 테마 : 고령화시대의 가계 자산관리

○ 요약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65세 비중은 2010년 11%에서 2060년에는 40.1%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해 가계 자산관리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고령화가 진전되면 축적된 금융자산의 유동화를 통하여 소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인구의 비중이 높아짐으로 주식 등 금융자산의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채권 수익률은 안전자산 선호 및 장기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은 고령자가 은퇴 후 소비수준 유지를 위해 주택매매를 늘리면서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고령화와 관련된 다양한 연금상품, 주택연금(Reverse Mortgage)상품, 자산관리서비스 및 맞춤형 금융서비스 상품들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가계자산 구성의 한 특징은 부동산 비중이 70%에 달할 정도로 높아 전체 가계 자산의 유동성이 낮고 부동산 가격 하락 위험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또 가계의 금융자산 중에는 현금 및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의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

따라서 고령화에 대비한 자산관리 방향으로는 첫째, 부동산의 일부 매도 또는 주택연금 상품을 활용하여 부동산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 둘째, 가계자산 구성 중 연금의 비중이 낮으므로 세제혜택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할 수 있는 개인연금상품의 가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저금리시대에 노후 투자수익 제고를 위해 가계금융자산 중에서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예금비중을 다소 축소하고 간접투자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장기 재무계획에 따라 전략적으로 투자상품을 확보하고 이를 가계 자산배분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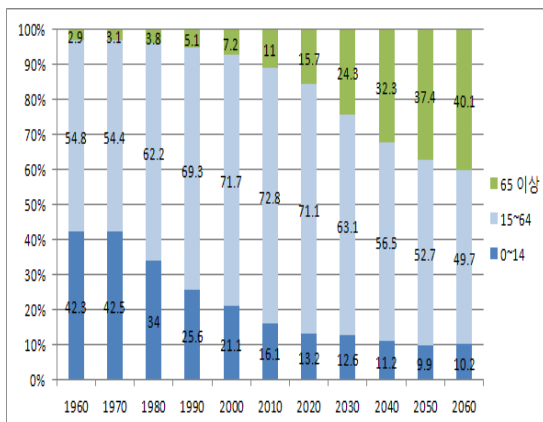
□ 한국 고령화의 현황

○ 한국은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 65세 인구 비중은 2010년 11%에서 2060년에는 40.1%로 확대 예상
 - 합계 출산율은 '71년 4.54명에서 '81년 2.57명, 2010년에는 1.23명으로 감소함
 - 기대수명은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보건·영양 개선 등으로 2000년 76.0세에서 2010년 80.8세로 증가했고 2060년에는 88.5세(남자 86.6세, 여자 90.3세)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진입에 18년, 초고령사회 진입에는 불과 8년이 소요될 전망되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름

○ 빠른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함으로 자산 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자산관리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그림1>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1).

<표1> 주요국가 인구 고령화 속도 비교

국가	도달연도			증가 소요연수	
	고령화 (7%)	고령 (14%)	초고령 (20%)	7% → 14%	14% → 20%
일본	179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독일	1932	1972	2009	40	37
미국	1942	2015	2036	73	21
한국	2000	2018	2026	18	8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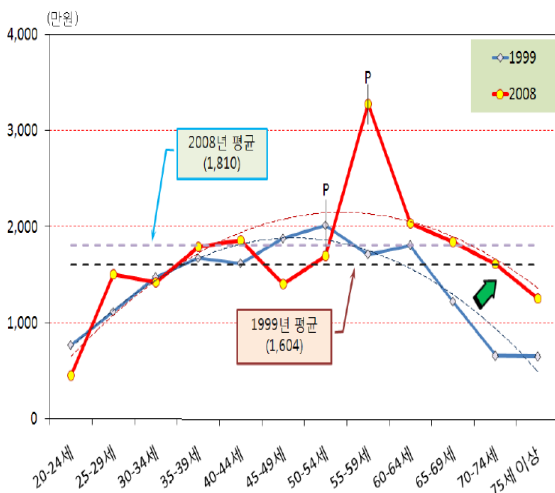
□ 고령화의 자산시장에 대한 영향

○ 고령화는 대체로 금융자산가격의 하락요인으로 작용

- 고령화가 진전되면 축적된 금융자산의 유동화를 통하여 소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인구의 비중이 높아짐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 주식 등 금융자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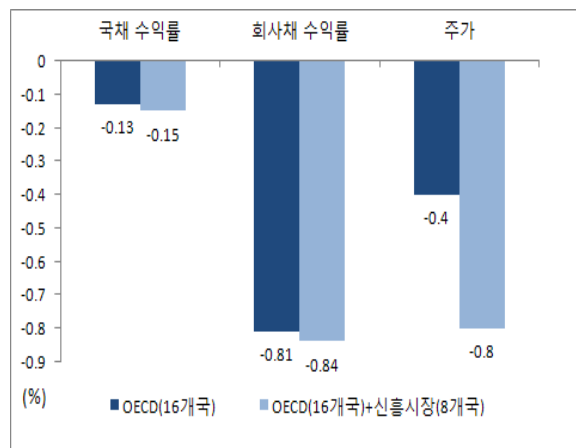
- 가구주 연령대별 금융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55-59세에 자산 보유규모가 가장 많고 그 후 줄어들어 역U자 모양을 보임(<그림 2> 참고)
 - 이는 중·장년기에 자산을 축적하고 은퇴 후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한다는 생애주기설과 고령화로 인한 자산가격 하락설을 뒷받침함
- 주가는 고령층이 퇴직 후 일정수준의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주식을 처분하는 경향과 고령층의 위험자산 회피 현상 때문에 하락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큼(<그림 3> 참고)
 - 실제 Hu의 분석에 따르면 OECD 선진국의 주가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 늘어날 때 0.4%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렇지만 소득 상승에 따른 금융자산 수요 증가 및 해외자본유입 증대에 따른 주식 수요 증대로 고령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상쇄될 가능성이 크며 저금리 시대에 주식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기대됨
- 반면 채권 가격은 이상과 같은 하락요인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안전자산 선호, 연금 자산 증가 등에 따른 장기국채 및 물가연동채권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큼
 - 이는 채권수익률의 하락을 의미하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 늘어날 경우 선진국의 국채 및 회사채 수익률이 각각 0.13% 및 0.81%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2> 연령대별 금융자산 규모 비교



자료: 장동구(2011), 고령화사회 진입이 금융시장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림3> 고령인구 증가가 채권 수익률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



자료: Hu, Yu-Wei(2006), The Impact of Pension Funds on Financial Markets.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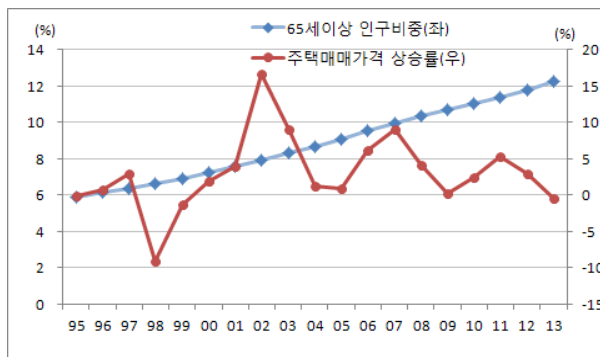
○ 주택가격도 고령화로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큼

- 고령자가 은퇴 후의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 매도를 늘리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 있음
- 고령화의 진전으로 주택 구입능력이 있는 연령대의 인구가 줄고, 저출산으로 가구 수가 감소하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고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인구비중과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추이를 보면 65세 인구비중이 8%일 때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17%로 제일 높았고 그 후 65세 인구비중이 증가하면서 주택가격 상승률은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그림4> 참고)
- 그렇지만 상속을 위한 주택수요는 오히려 증가될 수 있으므로 주택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낮음

○ 고령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상품의 공급확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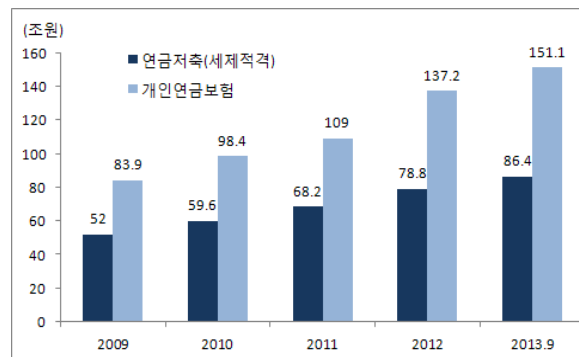
- 고령인구의 소득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도록 만들어진 연금상품이 보다 확대될 것임
- 우리나라 연금상품으로는 퇴직 후 안정적 삶을 위한 기업지원의 퇴직연금과 각 개인의 은퇴 후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인연금으로 구분될 수 있음
- 개인연금은 은행, 증권, 보험사가 판매하는 개인연금저축 등 세제혜택을 받는 연금저축과 보험사의 일반 연금보험 및 변액보험 등의 개인연금보험을 포괄하는데 그 적립금은 2008년 말 134조원에서 2013년 9월에는 238조원으로 75% 증가했음
- 금융자산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노후세대의 경우 보유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Reverse Mortgage) 상품이 확대될 것임⁵
- 고령화에 대비한 은퇴설계 등 종합자산관리서비스 및 맞춤형 금융서비스 상품들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4> 고령인구 비중과 주택가격 상승률 추이



자료 : 통계청, 국민은행.

<그림5> 개인연금 적립금 추이



자료 : 금융위원회.

⁵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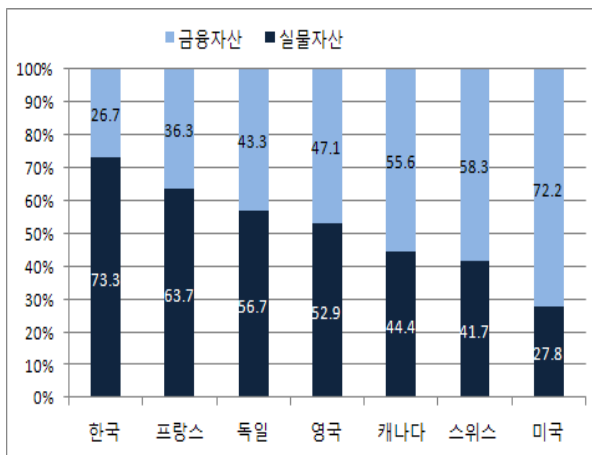
□ 고령화에 대응한 가계 자산관리 방향

- 고령화는 자산가격의 변화 및 금융상품의 다변화 등을 통해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계자산 구성변화 및 신규 금융상품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가계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가계자산 구성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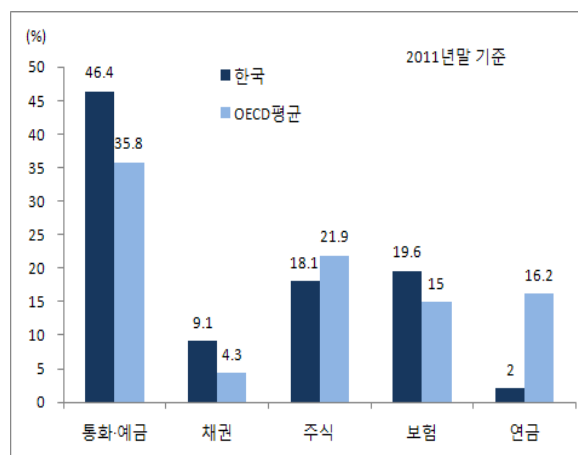
- 우리나라 가계는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 등 실물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자산구성에서 부동산 편중 현상이 심한데 이는 부동산가격 하락 위험에 취약하고 전체 자산의 유동성이 낮다는 것을 뜻함
 -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2013년 3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은 73.3%(부동산 비중: 67.8%)이며, 금융자산 비중은 26.7%에 불과함
 - 또한 고령층일수록 실물자산이 비중이 줄어드는 미국 일본의 가계와 달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실물자산 비중이 높아져 60세 이상인 가구는 자산의 82.7%가 실물자산임
 - 영국, 스위스 및 미국의 가계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은 각각 52.9%, 44.4% 및 27.6% 이므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도 가계의 실물자산 편중 현상이 두드러짐
-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중에서는 현금과 예금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고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 우리나라 가계금융자산 중 현금·예금 비중은 45.4%로 OECD 평균 36% 보다 높고 주식비중은 16.7%로 OECD평균 26.5%보다 낮음
 - 채권비중은 9.1%로 OECD평균 4.3%보다 높음

<그림6> 한국 및 주요국가 가계의 실물자산 비중



자료: OECD(2010), 통계청 가계금융조사(2013).

<그림7> 한국 및 OECD국가의 가계금융자산 구성



자료: OECD Factbook(2013).

주: OECD평균은 자료가 있는 13개국의 평균.

○ 부동산 비중을 줄이거나 부동산 자산의 유동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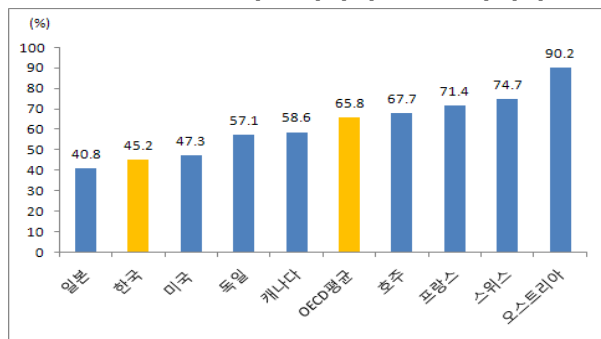
- 부동산의 일부 매도 또는 유동화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노후 소득의 원천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가계자산 중 부동산 편중 현상이 지속되면 부동산 가격 하락시 그 충격이 클 수 있고 부동산 위주의 자산 구성은 유동성을 축소시켜 다른 금융자산 투자의 제약요인이 됨
- 부동산자산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은 대부분의 노령인구가 자가에서 거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주택연금 상품을 이용해 유동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택연금(Reverse Mortgage)은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해 담보 및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또는 일정기간마다 일정금액을 연금의 형태로 받고 사망 후에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처분하여 상환하는 주택담보 연금제도⁶임
 - 국내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은 60세 이상, 보유주택 시가 9억원 이하이며 연령별 및 담보주택가격별 월 연금지급액은 아래 <표2>와 같음

<표2> 연령별 담보주택가격별 월 주택연금지급액

(단위:만원)					
담보주택(시가)	60세	65세	70세	75세	80세
1억원	22.8	27.4	33.3	41.2	52.2
3억원	68.5	82.2	99.9	123.6	156.5
6억원	137.0	164.5	199.8	247.3	313.1
9억원	205.5	246.8	296.9	317.5	349.7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 2014년 1월 기준.

<그림8> OECD 주요국가의 연금소득대체율



자료: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3.

○ 개인연금 상품의 비중 확대

- 고령화 시대 대응하여 공적연금을 보완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할 수 있는 개인연금상품의 가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개인연금가입자는 약 850만 명으로 20-60세 인구의 약 30%에 불과함
 -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 금융자산 구성에서 연금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로 미국 27%, OECD평균 16.2%보다 크게 낮아 연금비중을 보다 확대할 필요 있음

⁶ 주택연금은 대출유형에 따라 종신지급형(Tenure Mortgage), 확정기간형(Term Mortgage) 및 대출한도설정형(Credit Line Mortgage)으로 구분됨.

- 개인연금상품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거나 소득공제가 없더라도 10년이상 유지시 보험차익 비과세 등의 세제혜택이 있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유리한 점이 있음
- 종신행 연금상품은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장수위험 완화에도 기여함
- 또 우리나라 연금소득 대체율⁷은 45%로 OECD평균 65.8%보다 20%p 낮으므로 개인 연금상품 비중 확대를 통해 노후 연금소득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음

○ 예금비중 축소, 간접증권투자 확대

- 저금리 시대에 노후 투자수익 제고를 위해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 비중을 다소 축소하고 투자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식의 경우 고령화로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므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어느 정도 비중을 유지할 필요 있음
- 그렇지만 고령화 될수록 안전성과 유동성이 중요하므로 직접투자를 줄이고 간접투자(적립식주식펀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채권의 경우는 수익률 하락이 예상됨으로 채권펀드 상품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물가연동채권 및 장기국채 등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맺음말

- 고령화의 빠른 진전에도 불구하고 퇴직정년 단축, 핵가족화 진전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공적연금 시스템의 미흡으로 고령자의 사회안전망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임
- 이에 따라 고령화 관련 부담의 상당부분이 불가피하게 가계자산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므로 개인들은 고령화에 따른 자산시장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스스로 자산관리를 통해 고령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가계자산 중 약 70%를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을 줄여 유동성을 높이고, 연금상품에 대한 가입 비중을 높여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을 확보할 필요 있음
- 금융상품 중에서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 예금의 비중을 축소하고 간접투자상품의 투자를 확대하고, 자산관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민연금연구원 주상철 연구위원(3218-8644, scjoo@nps.or.kr)

⁷ 연금소득 대체율은 퇴직 후 연금(공공, 민간, 또는 모두)이 퇴직 전 근로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을 뜻함.

□ 세심록(洗心錄)

○ 정신건강에 좋은 직장 만들기

건강은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잣대이기 이전에 인간의 존재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다. 따라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 건강한 직장을 꿈꾼다. 산업화시대가 지나고 지식사회가 도래하면서 일의 모습은 육체노동이 주류를 이루던 것에서 정신노동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당연히 육체적인 건강에만 초점을 맞추던 시대는 지나가고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함께 혹은 후자를 보다 중시하는 시대로 접어들지 오래다. 그런데 문제는 정신적인 건강은 본인을 포함해 그 누구도 정확히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 직장에서의 정신적 건강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선진국의 경험은 눈여겨 볼 가치가 있다.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는 지난 9년 동안 매년 북미지역에서 가장 심리적으로 건강한 직장에 대해 상을 수여해오고 있다. 한 해 영리와 비영리 조직 두 곳씩 그리고 각각 작은 조직과 큰 조직을 기준으로 네 곳을 선정한다. 이중 한 곳은 정부, 군대 혹은 교육기관에 배정된다고 한다. 이 상을 받고 싶어 하는 조직의 응모에 뒤이은 자기점검리스트와 에세이 작성 그리고 지역 심리학회 회원들의 현장 점검의 절차를 거친다. 올해 수상의 영예를 안은 네 곳과 그들이 특별하게 일터를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한 일을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1) Tasty Catering : 시카고 외곽에 있는 200명이 근무하는 출장연회서비스 회사다. 이 회사의 공동창립자인 토마스 월터는 직장문화를 가장 중요시 여기며 스스로 사장의 직책을 버리고 Chief Culture Officer(대표 문화담당자)라는 명칭을 달았을 정도다. 기업의 핵심 일곱 가지 가치를 직원들에게 숙지시키고 이를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경우 경영진이라도 모든 직원들 앞에서 반성하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다. 회사의 모든 정보를 직원들과 공유한다.

2) Certified Angus Beef : 미국소고기협회(American Angus Association) 산하의 비영리 조직으로 100명이 일하고 있다. 사무실에는 지역사회에서 재배한 유기농 과일을 비치해 놓고 있다. 요가와 명상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의사, 변호사 그리고 심리상담가를 정기적으로 초청해 직원들을 돕도록 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 직원들이 집으로 가져갈 저녁식사를 준비해 준다.

3) St. Luke : 미네소타 주에 있는 비영리 병원으로 2,676명이 일하고 있다. 환자를 옮기고 이동하는데서 발생하는 직원들의 부상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제기된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원을 배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절반 이상 부상을 줄였다고 한다. 직원들의 환자에 대한 임무를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병원 전체에 걸쳐 의료물품과 장비 공급체계를 표준화했다.

4)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사립대학교로 2만 명이 일하고 있다. 35년 역사를 자랑하는 Center for Work and Family Life(일과 가족센터)는 무료로 모든 직원들에게 체중과 행동조절을 포함해 필요한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린자녀 양육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간호사와 아동교육전문 인력의 도움도 준비되어있다. 중년 혹은 그 이상 연령의 직원들을 위한 상담서비스도 마련되어 있다.

위의 네 조직에서의 뚜렷한 공통점은 직원들의 속마음을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것이다. 작은 조직과 큰 조직의 차이는 한 쪽은 경영자가 그러나 다른 한 쪽은 전문가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방식이라는 점이라고 하겠다. 아버지나 어머니에 비견되는 인생경험이 풍부한 창업들이 사라지면서 거대한 관료화된 조직이 대부분이 되어버린 한국에서 남의 말을 들어주는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은 행복한 직장을 만드는데 더욱 필요해 보인다.

비난은 보통 도움이 된다. 그러나 칭찬은 속임수인 경우가 많다.

- 윈스턴 처칠(영국의 정치인, 1874-1965)

□ 북리뷰

- 제목 :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⁸
- 저자 : 최연혁
 - 최연혁 교수는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스웨덴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박사를 받은 후 1997년부터 스웨덴 쇠데터른대 교수로 재직 중. 비교정치, 유럽의 정당정치를 가르치고 있으며,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 스톡홀름 포럼 대표 등으로 활동.

○ 주요 내용

- 스웨덴의 고성장과 고복지가 가능한 이유
 - 스웨덴은 깨끗한 정치, 투명한 사회, 높은 신뢰의 바탕 위에서 높은 수준의 보편적 복지가 가능했음을 강조
 - 상교육, 실업자 재취업 지원, 동일노동-동일임금(연대임금제), 노사정 대타협 등의 사회적 연대와 동반자 관계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존할 수 있었음
- ‘모든 것이 투명한 사회’, 스웨덴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
 - 구대학 연구실, 정부 연구기관, 정부 부처, 기업 사무실 ⇒ 모두 투명 유리창
 - 1766년 스웨덴 헌법 : “모든 공적 행위는 그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
 - 1809년 국가조직법 : “국가결정이 몇몇 사람의 탁상공론을 통해 결정되면 권력기관이 썩을 수 있다” 정책실명제, 모든 회의록 공개 ⇒ 부패인식지수(CPI) 4위
- 스웨덴 국회의원, 세상에서 가장 고된 직업
 - 개인 보좌관 없음. 정당의 지원팀이 자료열람만 지원. 車 없음, 대중교통으로 출근. 1년 평균 70개 의원 입법, 여름 휴회(2개월)를 빼면 10개월 상시 개회
 - 의원실에 비서가 없으니 손님이 찾아오면 직접 커피 가져옴, 지역 의원들은 대개 주말부부. 비행기 이코노미, 중급 호텔, 택시는 사유서 제출, 경비 처리 투명하게
 - ‘브리타 레이온’ 前장관 인터뷰 “정치의 주인은 국민, 국민 원하는 바를 위임받아 대신할 뿐. 정치인에게 특권이 몰려있으면, 정치는 반드시 부패”
- 신뢰에 기초한 기업과 노동 문화
 - 은행이나 언론보다 높은 대기업 신뢰도 : 수출은 스웨덴 GDP의 50%를 차지하고, 대기업이 수출을 주도, 1960년대까지는 고용창출로 1970년대부터는 사회보장의 재원(국가복지비용의 31.42%)을 담당하면서 사회격차 해소에 동참
 - 스웨덴 대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은행이나 언론보다 더 높음

⁸ 최연혁 지음,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쌤앤파커스, 2012.7.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 HRI 리더스 포럼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만찬

장소

서울시 주요호텔

시간

19:00 ~ 19:35 만찬 및 인사교류
19:35 ~ 19:45 경제 · 산업동향 브리핑
19:45 ~ 21:00 주제 강연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 유홍준 명지대 교수(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혜택

- 명사들의 주제강연(경제·경영·인문·사회·예술)
- CreativeTV(usociety.co.kr)WIP멤버십 제공
- 매회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제공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연회비

- 1명 가입시 100만원(1인)
- 2명 가입시 90만원(1인)
- 3명 이상 가입시 80만원(1인)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Tel. 02-2072-6246,6309
Fax. 02-2072-6249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